

“은산분리 완화”, 최종구 장군에 與의원 멍군

〈민병두, 정재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토론회

은행산업 내 평기효과 ‘긍정적’
핀테크 개척자 역할·영역 확장

순기능 살리고 보완장치 마련해
국제적 수준에 맞춰 나가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많이 성숙한 만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의 적용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정재호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1982년에 은산분리 원칙이 도입될 당시와 달리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 됐고, 감시체계가 강화됐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음달 열릴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상훈 케이뱅크 대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직접 나서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폐기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위원장은 “1년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며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쇼핑몰로 판매·홍보채널의 확대를 추진 중이고, 카카오뱅크는 디지털보안 기업과 협업해 비대면 실명확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의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은행의 경영전략을 변화시키는 등 은행산업 내 평기효과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며 “설립 초기단계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폐기효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던 ICT 기업의 지분 보유가 제한되면서 영업이 잘 될 수록 자본확충 고민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상훈 케이뱅크 대표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리딩할 수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의 판을 훼들 수 있는 과감한 의사 결정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다”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방향 논의에 뛰어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법을 빌의한 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폐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규제 기준을 만들어 피해가면 된다”며 “핀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안에 대해 합의점이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ICT 특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를 가진 기업이 은행업을 만나 만들어낼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는 전적으로 두 은행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 중앙 오른쪽)이 악시야 프라티스탄 재학생들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銀, 인도 현지학교 방문·기부금 전달

손태승 은행장, 경제사절단 참여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손태승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인도 구르가온에 위치한 악시야 프라티스탄(Akshaya Pra tisthan) 학교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인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를 방문한 손 행장은 악시야 프라티스탄 학교에 방문하여 기부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 학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교육을 위해 1987년 설립됐으며,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인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손 행장은 “우리은행은 전세계 25개국에 413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은행으로 인도 지역사회와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13억명의 인구와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도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손 행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 법인 설립 진행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금감원 제재심의위 대심제 도입 100일

안전 처리 빨라지고 진술인 수 늘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한 후 제재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100일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보다 1.9회 많았다. 월 평균 부의 안건은 27건에서 3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도입하면서 제재심을 징계 경중에 따라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회의도 수시로 열면서 안전 처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시간은 다소 늘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35분 늘었고, 안건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시간은 다소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장시간, 비효율적 심의 우려는 불식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당초 제재의 적시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안전 처리수가 증가하고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재대상자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

면서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10건으로 늘었다. 열람신청 및 열람자 수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리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 시행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재심 개최 횟수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대심제 운영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 네번째)이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오픈한 ‘스마트딜링룸’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 오픈

KB국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스마트딜링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은 글로벌 시장 상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갖추고 있으며, 모션디스플레이 도입과 직원 휴게 라운지 설치 등을 통해 장시간 집중력을 요하는 딜링룸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또 PC 리모트(Remote) 기반의 스마트딜링시스템 도입으로 자유로운 좌석이동이 가능해져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마련했다.

KB금융그룹은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은행과 증권사의 자본시장 부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한곳에 배치하는 ‘코로케이션(Co-located on)’을 완료했다.

/안상미 기자

IBK기업은행

유아용품 할인 받으세요 아이 그리고 행복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아동수당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바우처와 유아용품 구입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아이 그리고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9월 첫 아동수당을 기업 은행 계좌로 받는 모든 고객이다. 금융바우처 1만원과 브라이텍스, 미니버기 등의 고급카시트와 유모차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또 이벤트 대상 고객 중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과금, 4대 보험 등의 자동납부 또는 금여이체 신규고객 중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셜커머스 티몬(T-M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아용품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등 민·관 합동으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대상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총재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